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
연설을 하시였다

★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진행



조선

주체110
(2021)

11

(784)



주체45 (1956) 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례 CONTENTS

특별소식

- 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 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강연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 10 Ⅱ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진행

기념편집

- 32 Ⅱ 백두의 혁명전통계승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어

소식

- 42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진행
- 44 Ⅱ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시험발사
- 45 Ⅱ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시험발사 진행
- 46 Ⅱ 또다시 솟구쳐오른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오늘의 조선

- 48 Ⅱ 철강재생산지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 52 Ⅱ 황금나락 설레이는 전야
- 56 Ⅱ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
- 66 Ⅱ 군의 면모가 일신된다
- 70 Ⅱ 프랑스의 저명한 녀교수 조선의 최우수과학자에게
축하를
- 74 Ⅱ 《피플새학교》에서 성악가후비들이 자란다
- 78 Ⅱ 평양의 저녁

자연

- 86 Ⅱ 오가산자연보호구

표지: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진행
뒤표지: 금강산 집선봉의 가을

편집: 신재철, 김정철, 서철남, 김규성, 최일선, 승 룡



10



48



74



7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29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2일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한 건인불발의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는 수천만인민들의 기대속에 존엄높은 공화국의 최고주권 기관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을 축하하시고 격변하는 주객관정세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

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대외관계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긍정적변화들에 대하여 개괄분석하시였다.

불리한 환경과 난관속에서도 주체적힘과 내적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되고 심도있는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인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다져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사회주의기본 정치방식으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국가사업에서 인민적성격이 뚜렷이 발현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품이 현저히 개선됨으로써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애국적열의와 적극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시였다.

특히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가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보위하고 사심없이 돕는 혁명적본분에 항상 충실한것으로 하여 군민일치의 훌륭한 전통이 확고히 이어지고 불패의것으로 든든히 다져졌다고 하시였다.

혁명의 계승자들인 우리 청년들의 기세가 고조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하는 열풍이 세차게 일어난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약동하는 활기를 더해준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지속적인 승리와 양양한 전도를 낙관하게 하는 이같은 정치적성과들이 이룩된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국가의 무한한 힘으로,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대규모의 중요대상건설사업이 활기있게 전개되고있으며 농업과 국토건설, 도시경영, 과학, 교육, 보건을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심화되어 나라의 부흥발전을 안받침하는 진일보의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국방부문에서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억제할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있는 우리의 첨단무기들과 날로 강화되는 인민군대와 민간 및 안전무력의 전투적면모를 놓고서도 사회주의승리의 앞길을 강력히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강대함을 확신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정의와 진리를 대표하고 철저한 실행력을 내포한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국제정치무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대외적권위가 날로 높아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체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는 부단히 강화되는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더욱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당당히 자부할수 있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현시기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정책적과업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시였다.

우리당 제8차대회가 엄숙히 선포한대로 공화국 정부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임무는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변화로써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립증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인 락후한 모든것을 불살라버리며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는것이라고 하시였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주체조선고유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

특보식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정치풍토, 국풍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고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극성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지도하는 일군들속에서 조선로동당에 고유한 인민적사업작풍을 배양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사소한 반인민적행동도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 비타협적인 투쟁을 중단없이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고취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공민들이 일상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강한 나라의 인민다운 기품과 인격이 발양되도록 옹계 인도하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국가경제를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으로 이행시키는것을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제기하고 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전개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인민경제의 자립적, 전반적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그 실현조건을 주동적으로 성숙시키면서 강하게 추진하며 뒤떨어진 부문과 단위들이 자기 분야를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망목표와 단계별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도록 옹계 지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사업에서 현시기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원료와 자재, 동력과 설비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 원료를 보장하는 기본생산부문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전반적경제발전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주요제철소, 제강소들과 철광산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금속공업부문의 능력확장과 현대화사업을 동시에 힘있게 내밀어 가까운 앞날에 국가적인 철강재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하고있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사업을 과학기술적담보밑에 힘있게 추진하고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기초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며 갈에 의한 종이와 섬유생산을 실현하고 갈탄을 화학공업의 기본원료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과 촉매의 국산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구체적

으로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전력과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당면한 수요만이 아니라 전망적수요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전반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과업을 밝히시고 기계공업과 정보산업을 발전시켜 설비의 국산화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존생산 공정들을 개건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것은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하시면서 당의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인민경제적으로 의의가 큰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계획한 생산능력 확장사업을 모가 나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 송신, 송화지구의 살림집건설을 올해중으로 완공하고 다음단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련속적으로 진입하여 또 하나의 현대적인 구역과 거리를 일떠세우며 새로운 건축형식을 적극 도입하면서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아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말아 추진하고있는 검덕지구 건설을 빠른 기간안에 결속하고 도, 시, 군들에서도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인민들이 훌륭한 살림집을 쓰고살면서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적인 국토건설총계획을 바로 세우고 도, 시, 군들에서 치산치수를 비롯한 국토관리 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하여 5개년계획기간안에 큰물에 의한 피해위험성을 기본적으로 없애며 나라의 생태환경을 일신하고 도시원림록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녹색성장계획을 실속있게 추진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은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데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내각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방법론적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시였다.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심화시켜 모든 무역활동이 경제부문의 수입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확대발전되도록 하며 경제관리분야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안들을 진지하게 연구적용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혁명과업은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유족한 생활을 제공해주자면 농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까운 앞날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농업발전 전략을 정확히 작성하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며 특히 재해성이상기후에 건디여내면서도 소출이 높은 종자들을 육종, 개량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자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농작물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에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면서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재배면적을 늘이며 밀, 보리와 종면적을 2배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개선해나갈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품종배치와 파종시기를 합리적으로 잘 조절하는것을 비롯한 새로운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연구적용하고 앞선 단위들의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물관리체계를 세우고 물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설정하고 모든 관개구조물들과 설비, 저수지와 물길들을 정비보강하며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가물과 큰물피해를 막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재해성이상기후에 제때에 대처할수 있게 기상관측수단을 현대화하고 기상예보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축산부문에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염소와 소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전군중적운동으로 토끼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며 사료단위를 극력 낮추고 수의방역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특히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하여 전국적인 젓생산량을 현재의 3배이상으로 늘이며 젓가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젓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파일과 남새생산을 집약화하고 대규모남새온실농장들을 많이 건설하며 기름작물, 당작물을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을 추켜세워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중앙과 도, 시, 군들에서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부문의 새로운 전형단위,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서와 농업부문에서 허풍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데 대하여, 국가적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수 있게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수매방법을 바로 정하고 옹계 실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시, 군량정사업소들을 잘 꾸리고 량곡가공공정을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 국가에서 래년부터 시, 군들에 세멘트를 무조건 보장해주는것을 정책화, 법화하여 지방건설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농촌들의 면모를 개변시킬데 대한 중대계획과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보장에서 나서는 급선무는 경공업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6개월 이상 선행시켜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소비품생산에서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소비품의 질을 제고하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을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또한 시범적으로 개건표준화하고있는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공사를 다그쳐 끝내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의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기술개건을 빠른 시일안에 완성할데 대하여서와 지방의 경공업 원료들을 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남김없이 동원하며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과 생활필수품생산을 적극화하고 사회주의상업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업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와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통출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들을 만들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와 관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엄격히 단속통제하며 바다와 강, 호수들에 새끼물고기를 방류하는 사업을 눈에 띄도록 활발히 하고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

벌려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문명수준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국가부흥과 발전, 미래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시면서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공화국정부는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키워 그들이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것이 국풍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절박한 해결을 요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시급히 푸는것을 종자로, 기본과제, 선결과업으로 삼고 그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다그치며 그것을 현실에 적극 도입하여 실지은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선진교육국으로 전변시키는것은 공화국 정부앞에 나선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교육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교원력량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내용과 체계, 방법을 적극 탐구적용하며 세계교육발전 추세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더 많은 개발창조형의 인재, 실천형의 인재들을 양성할데 대하여서와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과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려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전체 인민의 건강증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보건제도를 마련하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높은 수준에서 축성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인민들과 후대들의 운명, 정신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공화국정부는 마땅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체육사업을 시대와 현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사람들의 의식상태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일군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세대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 집단주의교양을 방법론있게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최대로 중시하고 완벽성을 기하여야 할 사업인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우리의 방역체계를 보다 믿음성있고 발전된 방역으로 이행시킬데 대하여 언명하시면서 방역규정과 질서를 지키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활적인 요구로, 생활습관으로 되게 하여 대중적인 방역분위기와 전사회적인 자각적일치성을 계속 유지하며 나라의 방역기반을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세우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인 권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공화국무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건설 목표들을 철저한 실천으로 관철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며 시대적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백방으로 다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본분에 맞게 모든 활동을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로 일관시키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 리익을 실현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배치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권기관 일군대렬을 당성, 혁명성, 인민성이 높고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실력가들로 꾸리며 정권기관들의 기구와 사업체제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이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견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를 론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판을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언명하시였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지금 북남관계는 현 뱀장끼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론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립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리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색되어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 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력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 국제정치정세를 분석하시고 대외사업부문이 다사다변한 외부적환경에 더욱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수 있다고 분석하시였다.

새 미행정부의 출현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력량관계를 호상면관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외사업부문에서 더욱 불안정해지고있는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우리의 국권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을 참된 삶의 품으로 여기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하늘같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간직한 제일 귀중한 값진 재부이며 이 믿음에 보답하는것은 이 나라 수천만 공민들앞에 지닌 우리들모두의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의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인민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최대의 노력으로써 자기의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표명하시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구호높이 위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시정연설은 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표대를 향한 전인민적투쟁에 무한한 활력과 고무를 주고 국가정권기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강연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6돐 기념강연회에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맞는 참가자들을 축하하시고 당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령도력과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실천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전당적인 기념강연회를 조직한 의도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76년이라는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력사를 새기고있는 조선로동당이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면서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린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0년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앞에는 조성된 혁명정세에 부응하여 당을 더욱 건전하고 강위력하게 건설해야 할 시대적과제가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초유의 난관이 겹쌓인 조선혁명의 주객관적환경과 이를 과감히 타개하기 위하여 당이 당대회와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에서 제시한 중대정책과업들의 철저한 집행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당중앙과 공화국정부의 기본투쟁로선과 방침을 똑바로 알고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불가항력적인 백전백승의 힘인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당내부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사상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당책임일군들이 근로 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가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적지도를 잘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책임일군들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건전한 사업기풍을 유지하고 높이 발휘해나아가야 한다고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는 중앙당 부서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부서들이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이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가 설정한 5개년계획 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작전을 련속적으로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조선로동당의 결심과 의지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에는 천만인민의 소중한 믿음이라는 불가항력의 힘이 있고 굳건하고 단결된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다고 하시면서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가 향도하고 고무해주는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발전을 위하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전환될 위대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진행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기념연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을 직접 한눈으로 볼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선진성과 현대성, 영웅성이 응축된 국방발전전람회에 참가한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오늘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올해의 우리 당창건기념일을 더욱 뜻깊게 경축하고 이채롭게 빛내이게 하고있습니다.

이번 국방발전전람회는 그 명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불패의 자위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명도력, 실천적집행력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하고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축전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국방정책과 그 빛나는 생활력이 집대성된 오늘의 성대한 전람회는 대규모열병식에 못지 않게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국력시위로 됩니다.

동지들!

변화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 그리고 세계적판도에서의 군사력의 급속한 변화의 요구에 상응하여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 더욱 강하고 절대적인 힘을 키워야 할 막중한 역사적사명을 걸머지고 우리 당이 지난 5년세월 필연코 단행해야 했던 사생결단의 국방공업혁명의 길, 미지의 생눈길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엄혹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뿌듯한 희열의 순간들이 갈피마다에 새겨져있는 지난 5년간의 국방력발전로정은 그 한결음한결음이 당과 조국, 인민들과 후대들앞에 더없이 땀땀하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보람넘친 혁명의 길, 애국의 길, 위대한 승리의 려정이었습니다.

여기 전람회장에 준비하게 늘어진 지난 5년간 이루어낸 무장장비들을 무심히 볼수가 없습니다.

쫓아보고 만져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한없는 긍지와 자부가 커지는 소중한 우리의것들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것을 발악적으로 두려워하는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더욱 혹독한 고생과 시련을 각오하면서도 우리 당의 국방강화정책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지지성원해준 전체 인민의 믿음과 열렬한 조국애가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낼수 없었을것들입니다.

저 무장장비들마다에는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우리 당을 따라서 국방건설의 길에서 천신만고를 헤쳐온 정녕 잊지 못할 수많은 사연들이 깃들어있으며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 희생적으로 투쟁한 그들의 진한 피와 땀방울이 스며여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항상 우리 당의 그 어떤 요구와 결심도 무조건적으로 절대지지하고 결사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국방력강화의 역사적대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무한한 충실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공화국의 건국력사에 일찌기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고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을 풀어주는 특출한 최신성과들을 이룩하는데 공헌한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동지들과 전체 군수로동계급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전체 인민의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또한 전체 인민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번 전람회가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자들의 전람회, 국방부문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격려와 고무의 전람회,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더 빠르고 더 힘찬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진취적인 전람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동지들!

우리당 국방정책의 진수는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이며 부단히 발전향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억제하고 평화를 믿음직하게 흔들림없이 수호하는것입니다.

력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수난을 겪어왔으며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민족사의 교훈과 조선혁명의 요구와 특수성으로부터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국사로 되고있습니다.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의 군사적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할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와 인민의 존재자체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은 동서고금의 세상리치입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군사기술과 무장장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군사작전양상과 지역마다 국가들의 안전환경은 변화되고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주변의 군사적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앞에 조성된 군사적위협성은 10년, 5년전 아니 3년전과도 또 다릅니다.

앞에서는 평화 그리고 협력과 번영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빈번히 벌려놓는 각이한 군사연습들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알수 있고 최근 들어 도가 넘을 정도로 로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현대화시도를 봐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환경이 변화될 래일을 쉽게 짐작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스텔스 합동타격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방대한 각종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자기 군대의 전투력을 갱신해보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미싸일지침을 개정한 이후 자체의 국방기술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각이한 탄두개발, 사거리제고 등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미싸일능력향상을 비롯하여 잠수함전력강화, 전투기개발 등 다방면적인 공격용군사장비현대화시도에 전념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이같이 도가 넘치는 시도도 방치해두기 위험한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것은 그들의 군비현대화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태도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하는 남조선당국이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까지 빼앗으려고 심지어 우리의 상용무기시험까지도 무력도발이라느니 위협이라느니,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느니 하는 딱지들을 잔뜩 붙여놓고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목소리를 술선 선창하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창건 76돐을 맞으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10월 11일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내각, 성,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과 조선인민군 각 군종 련합부대장들이 참가하였다.

국방공업부문의 공로있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전람회에

초대되었다.

개막식에 앞서 종합군악대의 특색있는 레식이 진행되었다.

이어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격술시범출연이 있었다.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키워온 군인들은 전투동작과 조법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환희로운 10월의 하늘가에 붉은 당기를 휘날리며 최우수락하산병이 강하기교를 펼치였다.

개막식장 상공에서는 전투비행사들의 기교비행이 진행되었다.







장쾌한 폭음속에 초저공비행, 수직급상승기교, 쌍기반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중전투비행동작들을 능숙히 수행하면서 평시에 련마한 비행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비행대를 향해 관중들은 경탄의 환성을 연방 터치였다.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

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 공로자들과 함께 주식단에 등단하시자 열광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전람회개막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터쳐올리면서 총비서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개막식에서는 나라의 국방력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나라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과 김일성상, 김정일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직접 수여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람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전람회장에는 최근 5년간 개발생산된 각종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하나하나의 무장장비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보시며 세계최강의 자위적국방력을 억척으로 다지는 민족사적성업에 바쳐진 조선로동당의 붉은 국방전사들의 열렬한 애국충정을 다시금 평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국방발전전람회를 기념하여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뜻깊은 사진을 찍으신데 이어 기교비행 및 강하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조선인민군항공 및 반항공군의 락하산병, 전투비행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부국강병의 전투적려정에서 고락을

같이하는 령도자와 전사들사이의 뜨겁고도 친근한 정이 차넘치는 전람회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참가자들의 크나큰 공지와 영예, 행복감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강국의 존엄과 기상이 력연한 무적의 병기들에 깃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화선령도사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걱정속에 나누며 강철의 신념과 담력,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존엄높은 강국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에 대한 경모심을 금치 못하였다.







백두의 혁명전통계승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사회주의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흐르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뭉쳐 즐기찬 전진과 발전,
거창한 창조와 전변의 새 역사를 수놓아온 이 나날에
전체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굳게 자리잡은 신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가 있기에 이 땅에서는
승리와 영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고 민족의 미래는
더 밝고 창창하다는것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을 감회깊이 더듬어보는
조선인민의 추억은 뜨겁고도 강렬하다.

사회주의조선의 지나온 10년간은 나라와 민족의
존망을 위협하는 엄혹한 도전과 난관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았던 험준한 나날이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순간의 담보나 침체도 없이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막아서는 모든 곤난과 역경을
과감히 박차며 사회주의길로 즐기차게 전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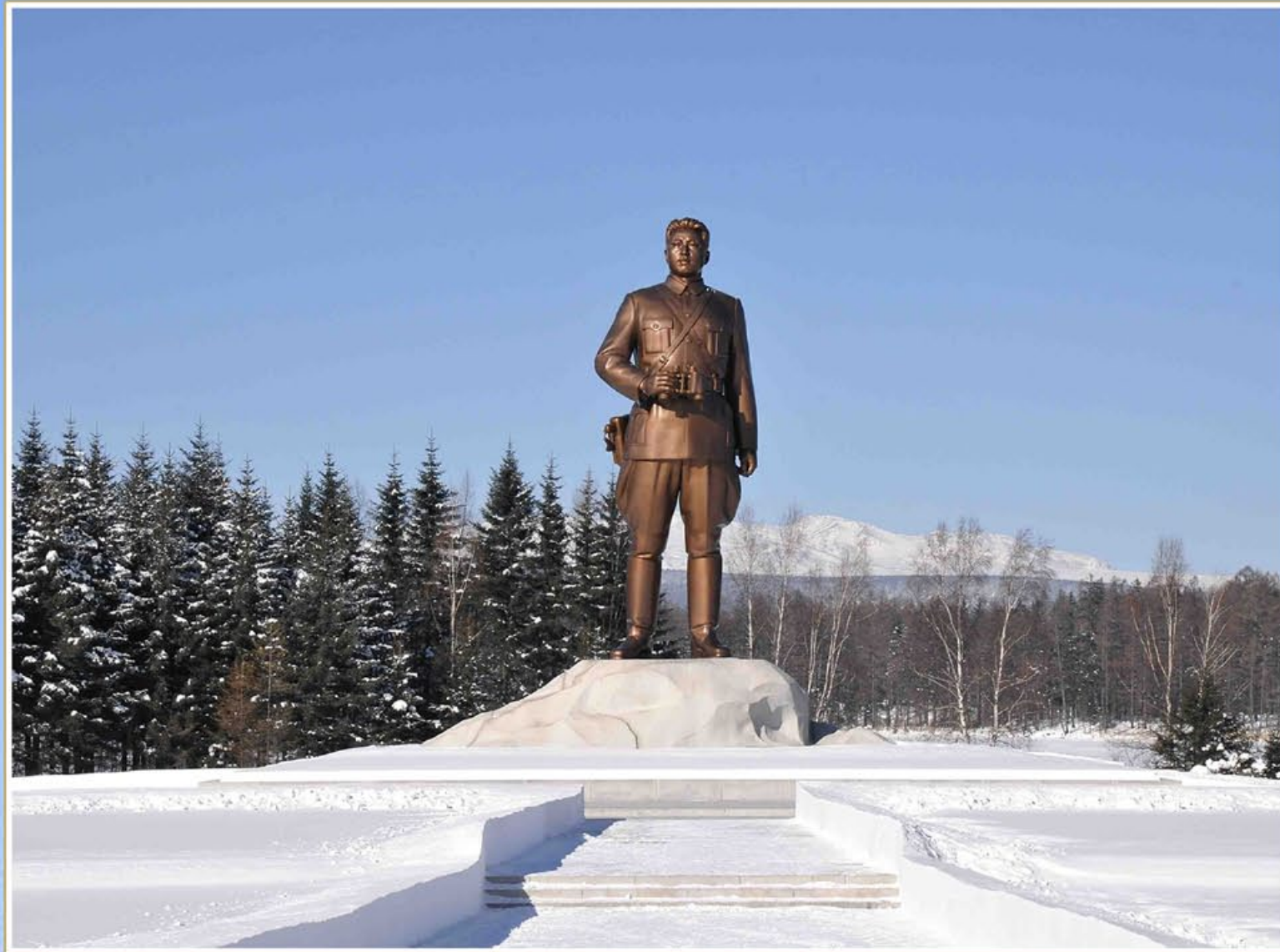
그것은 조선인민의 가슴마다에 진할줄 모르는 힘과
열정, 슬기와 담력을 안겨주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뜨겁게
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락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끊어지고 사회주의국가의 력사도 종지부를
찍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이다.

혁명전통의 계승문제는 2010년대에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중대한 력사적전환기가 시작된것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백두에서 뿌리내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막아서는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
로를 열어제끼자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심
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인민이
백두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
였다.



삼지연못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1월

또한 혁명전통이 창조된 항일의 친구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면서 혁명전통계승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백두산지구가 차지하는 역사적지위를 깊이 통찰하시고 이 지구를 혁명의 성지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이끄시었다.

그이께서 끊임없이 진행하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현지지도는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고수하고 이어나가야 할 피줄기는 오직 백두의 혁명전통뿐이라는 신념을 굳게 새겨준 거룩한 행로였다.

하여 주체108(2019)년 12월 량강도 삼지연시가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산간도시의 표준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이 땅우에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의 친구들뿐 아니라 온 나라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대들이 깊이 새기도록 하시었다.

주체103(2014)년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것을 비롯하여 창골혁명사적지와 유평혁명사적지, 평천혁명사적지 등 전국도처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찾으시며 혁명전통계승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이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또한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

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시었다.

그이의 세심한 령도밑에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진데 이어 조선혁명박물관이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되게 되었다.

온 나라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열풍이 세차게 나래쳤다.

전국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지구를 답사행군하였으며 그 대오는 해마다 늘어났다.

특히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체108(2019)년 12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으신 때로부터 각계각층 인민들의 답사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소리가 온 나라에 높이 울려 퍼지고 백두의 행군길을 걷는 답사대오가 끝없이 이어져갔다.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 억천만번 죽더라도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이룩할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 온 나라에 용암처럼 끓어번지었다.

위대한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인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온 나라에 나래치게 하고 그 위력이 이 땅우에 기적과 혁신으로 펼쳐지도록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은 자랑스런 승리의 길로 즐기차게 전진해온것이다.

글 최광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8(2019)년 12월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백두산정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4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1월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상을 심장깊이 간직하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근로자들과 청년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가 9월 28일과 29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 군당책임비서, 인민위원장들, 도급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의 2일회의에 참석하시어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들과 결정이 채택되고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는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비상한 자각과 열의속에 진행되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의 하나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시험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 28일 자강도 룡림군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에 속하는 극초음속미사일연구개발사업은 순차적이고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어왔다.

첫 시험발사에서 국방과학자들은 능동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정성 그리고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기동성과 활공비행특성을 비롯한 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도입한 암물화된 미사일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하였다.

시험결과 목적하였던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설계상요구에 만족되었다.

조선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자기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전략무기 보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전투성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실용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또다시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쏜구쳐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에서는 10월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국방과학원은 5년전 첫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8.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소식을 당중앙에 보고드렸다고 하였다.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조선인민군 해군의 수중작전능력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재생산기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정비 보강을 중요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면서 국내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철강재 생산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00t초고전력전기로의 대보수공사에 이어 지난 9월말까지 산소열법용광로 대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철강재생산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용광로직장에서 로운영기술을 새로운 과학적로대에 올려세우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고조시키면서 선철생산을 다그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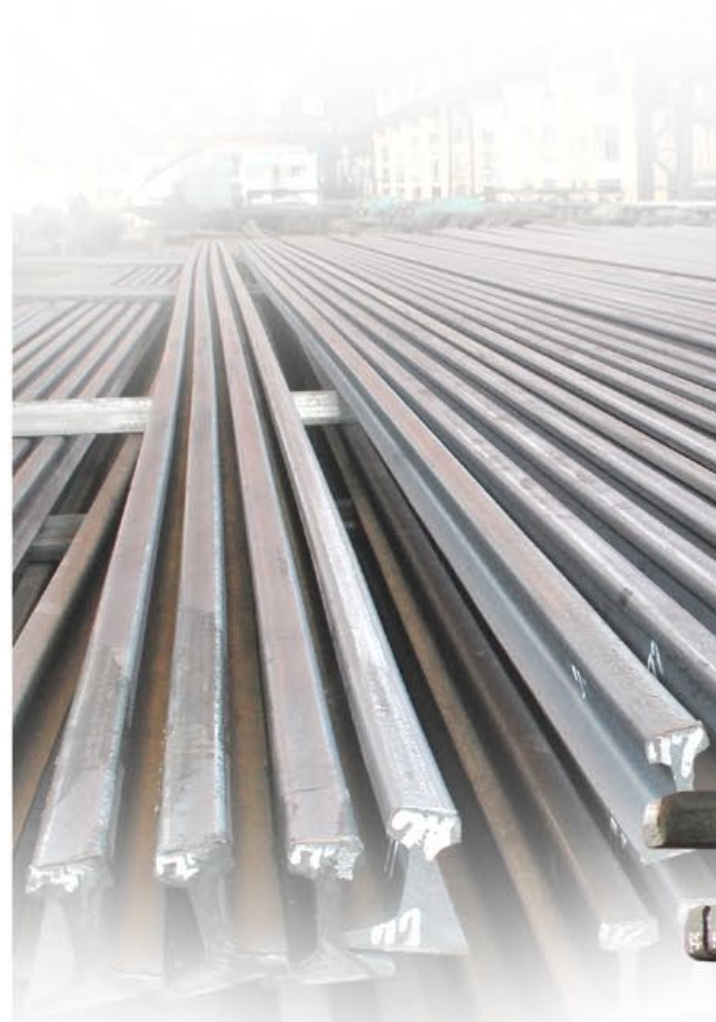
여러 작업반들에서 로의 기술관리와 원료보장 등을 짜고들어 출선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고있다.

산소분리기2직장에서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면서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강철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높아진 생산능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설비관리, 기술
관리를 짜고드는 한편 전극랭각장치를 비롯한 새 설비
들을 갖추어 강철생산량을 계속 늘이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생산능력확장사업도 힘있게 다그
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최광호





황금나락 설레이는 전야



예로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러오는 가을이 왔다.

전야마다 탐스러운 이삭과 열매
들이 고개를 무겁게 드리우고 물결
치듯 설레이고있다.

결코 자연이 베푼 혜택이 아니다.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이
불리한 이상기후가 계속 들이닥쳤던
봄내여름내 모두 떨쳐나 성실한 구슬
땀을 흘리며 마련한 결실이다.

전야마다 펼쳐진 작황을 흐뭇하게
느끼며 가을걷이에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일손에도
신바람이 났다.

협동벌마다에서 들려오는 기제
들의 우렁찬 동음이며 전야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퍼지는 흥겨운
풍악소리로 밤길도록 잠들줄 모르는
농촌마을들이다.

사진 리광성, 리성의
글 김선명





조선의 민족간부육성의 중심기지이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된 때로부터 7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해방(1945. 8. 15.)될 당시 조선의 기술자, 전문가는 12명밖에 없었다.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에서 인재가 차지하는 역할을 매우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간부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앞으로 세우게 될 각 대학의 모체로서 종합대학을 먼저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대학창립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참석하에 주체35(1946)년 10월 1일 종합대학 개교식이 진행되고 해방된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대학창립이 선포되였다.





1946 - 2021



김일성종합대학은 주체35 (1946) 년 10월 1일 창립되었다.

창립당시 7개 학부와 600여명의 교원들로 첫걸음을 떤 김일성종합대학은 오늘 21개의 학부, 수백명의 저명한 원사, 교수, 박사를 포함한 강력한 교원력량을 가진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전변되었다.



2년후인 주체37(1948)년에는 종합 대학의 여러 학부들이 분리되어 오늘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원산농업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이 나왔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잡아주신 터전에 일떠선 새 교사가 준공되었고 이듬해에는 첫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김일성 종합대학은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어오며
 수많은 민족간부들을 키워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할 뜻을 품으
시고 **김일성**종합대학에 혁명활동의
첫 자욱을 새기신 주체49(1960)년
9월 1일은 종합대학의 력사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날이다.

이때부터 종합대학의 교육사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손길아래 과학 교육사업수준과 규모에서 내외에 널리 자랑할 배움의 대전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창립당시 7개 학부와 60여명의 교원들로 첫걸음을 뗀 종합대학은 오늘 21개의 학부, 수백명의 저명한 원사, 교수, 박사를 포함한 강력한 교원력량을 가진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전변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생들은 전문부문의 선진과학기술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며 학술형, 실천형의 인재들로 준비해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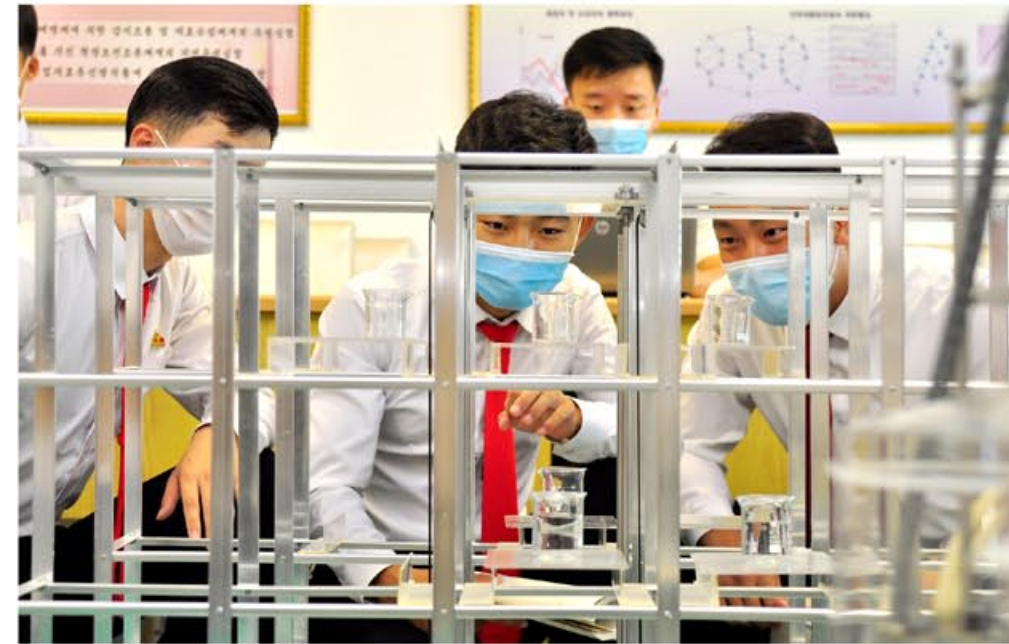


평양시 대성구역 룡남산일대의 넓은 부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중심으로 대학본관과 4개의 교사, 과학도서관, 전자도서관, 자연박물관, 체육관, 출판사, 기숙사, 종합편의시설, 대학병원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거대한 대학촌을 이루고있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선발되는 학생들은 자기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지망한 학부들에서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본과과정을 마치게 되며 우수한 졸업생들은 그후 박사원 과정과 박사후과정까지 거치고있다.

최근년간 대학안의 모든 교실들이 현대적교육설비들을 갖춘 다기능 교실로 변모되고 실리있는 새 교수 방법들이 적극 도입되어 수강생들의 실력제고를 보다 굳건히 담보하고있다.





그리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되고있는 대학의 교육체제와 방법, 과학연구력량 그리고 첨단 지향적인 지적제품생산기지 등을

통하여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하나로 밀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추진되고있다.

그뿐만 물질기술적토대와 경쟁한

두뇌진들을 갖추고있는 대학의 과학연구력량은 사회주의조선의 줄기찬 전진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기본집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들에 의해 우주론과 물질설계, 량자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미해명문제들의 해결이 앞당겨지고있는것과 함께 조선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공들이 수많이 이룩되고있다.

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은 전국대학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앞장에서 선도해나가는 중심기지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령역의 발전을 추동하는 학술적거점으로 되고있다.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일관한 관심과 보살핌속에 **김일성**종합대학은 보다는부신 미래를 향해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진 리명국, 리진혁
글 김선경





전자도서관



자연박물관



대학에서는 국제학술대회와 여러 나라 대학들과의 초빙교수교환, 전문가교환 등 교류와 협조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첨단기술개발원에는 정보기술연구소, 통신산업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 생물산업연구소, 나노기술연구소, 분석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연구소들이 있다.



군의 면모가 일신된다

-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

산이 많으면서도 비교적 낮은 지대인 평안남도 성천군에는 대동강의 지류들중 두번째로 긴 비류강과 그에 합류되는 10여개의 하천들이 있다.

10여년전까지도 장마철이면 큰 물로 강하천들이 모두 불어나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교통조건까지 악화되어 농업생산이나 인민들의 생활이 커다란 지장을 받곤 하였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탓하며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란다면 언제 가도 이 악순환을 끊고 부흥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한 성천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국토관리 사업에 떨쳐나섰다.

기술자들은 군내 모든 강하천들과 산골지대들에 대한 답사를 새롭게 진행하여 물굽과 통수량을 면밀히 조사장악한 다음 가장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강하천정리설계를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사방야계공사를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년차별계획을 세워 완강하게 실현해

나갔다.

군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주민들은 자기 고향, 자기 마을이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마다 강하천바닥파기와 제방정리, 량안제방쌓기, 나무심기, 잔디입히기 등을 적극 내밀었다.

특히 군소재지를 감돌아흐르는 비류강에 수만㎡의 량안제방장식을 쌓고 수종이 좋은 수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읍지구를 큰물로부터 보호하고 풍치를 한껏 돋구었다.





그 기간에 130여정보의 토지가 환원복구되고 근 1 200정보의 댐습지가 개량되었으며 수천정보의 토지가 큰물로부터 보호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군안의 도로들을 개건 보수하는 사업이 통이 크게 진행되어 20여개의 다리들이 건설 및 개건되고 웅벽공사들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도로구간의 암거와 수통들이 교체되었다.

군에서는 산림실태와 토양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한 기초우에서 산림자원을 늘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우선 군산림경영소의 모체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나무

모들을 계단식으로 키워냈다.

그리고 식물활성제도 자체로 연구 도입하여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훨씬 높였다.

군에서는 국토관리와 환경보호를 줄기차게 진행하는 동시에 읍지구와 농촌마을들에 수천세대에 달하는 소충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건설하고 력사유적들이 보존되어있는 장소들에는 공원들도 꾸려놓았다.

오늘 성천사람들은 이미 마련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향땅을 후대들에게 물려 줄 래일을 앞당겨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프랑스 빠리8종합대학 (수학부) LAGA연구소 대수, 기하, 조합수학 및 암호와 부호에 대한 응용 연구소 책임자 시헴 메쓰네거

여러분!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김광호선생의 연구사업과 공동연구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광호선생은 수준이 아주 높은 과학자입니다. 지난 기간 그는 정보리론일반에 대한 수학적 응용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초점을 첨단적이고 관심을 끄는 주제들에 두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세계적으로도 미해명으로 되어있거나 가설들에 기초한것들이였습니다.
김선생은 공동연구자들 특히 조선과학자들과 함께 독창적이면서도 정확한 해답들을 얻어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들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권위있는 국제 학술잡지들에 출판되었고 그가 이끄는 명성높은 조선의 국가과학원의 연구집단은 세계적인 패권을 잡고있습니다.
그가 이룩한 독창적이며 기발한 주요연구성과들과 그의 지도와 고무, 과학에 대한 헌신성으로 하여 김광호선생은 조선과학자들속에서 타원곡선공개열쇠암호체계의 고속화를 비롯한 계산대수기하학의 다른 분야들뿐 아니라 유한체상의 대수방정식풀이분야에서 일류급수학자로 인정되고있습니다.
김광호선생은 뛰어난 성과들을 내놓고 조선의

De: Sihem Mesnager <smesnager@gmail.com>
Objet: Appreciation on the research work of Professor Kwang Ho Kim
Date: 21 août 2021 à 00:29:35 UTC+2
À: flph@star-co.net.kp

Dear all,

I wanted to present my appreciation on the research work of Professor Kwang Ho Kim from the Institute of Mathematics, State Academy of Sciences, Pyongya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his collaborations.

Professor Kwang Ho Kim is a very high-level scientific researcher. During the previous years, he focussed, particularly on trendy and exciting topics devoted to mathematics with applications in the general context of Information Theory. Some of them were considered as wide-open problems and hard conjectur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With his collaborators, notably Korean scientists, he succeeds in providing elegant and efficient solutions. All the achievements were published in the best high standard and high estimated international journals in his domain and leads the research team at the prestigious Academy of Sciences in Korea holds the world supremacy. Thanks to his crucial scientific achievements full of creativity and originality, his encouragements including guidelines, and his dedication to high scientific quality, the Korean scientists headed by Prof. Kwang Ho Kim, notably, are undoubtedly recognized him as a leading mathematician in the field of solving algebraic equations over finite fields as well as in other branches of the computational algebraic geometry involving speedup of the elliptic curve public-key cryptosystems. Thanks to his excellent performances and determining role within the Academy of Sciences in Korea, and his exceptional inspiration in research, Prof. Kwang Ho Kim will certainly continue being a motor for future advances and scientific investigations at an excellent level. Prof. Kwang Ho Kim has all the merit and the best estimation that a scientific researcher could have! Congratulations to Prof. Kwang Ho Kim!

Best regards,
Sihem Mesnager
University of Paris VIII (department of Mathematics), France
Head of the Research group: Algebra, Geometry, Combinatorics, and applications to Cryptography and Coding -LAGA-Lab

국가과학원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며 비상한 과학적 착상들로 미래의 진보와 과학탐구를 계속 떠밀어나갈것입니다.
김광호선생은 과학자로서 실력이 뛰어납니다!
김광호선생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프랑스의 저명한 녀교수 조선의 최우수과학자에게 축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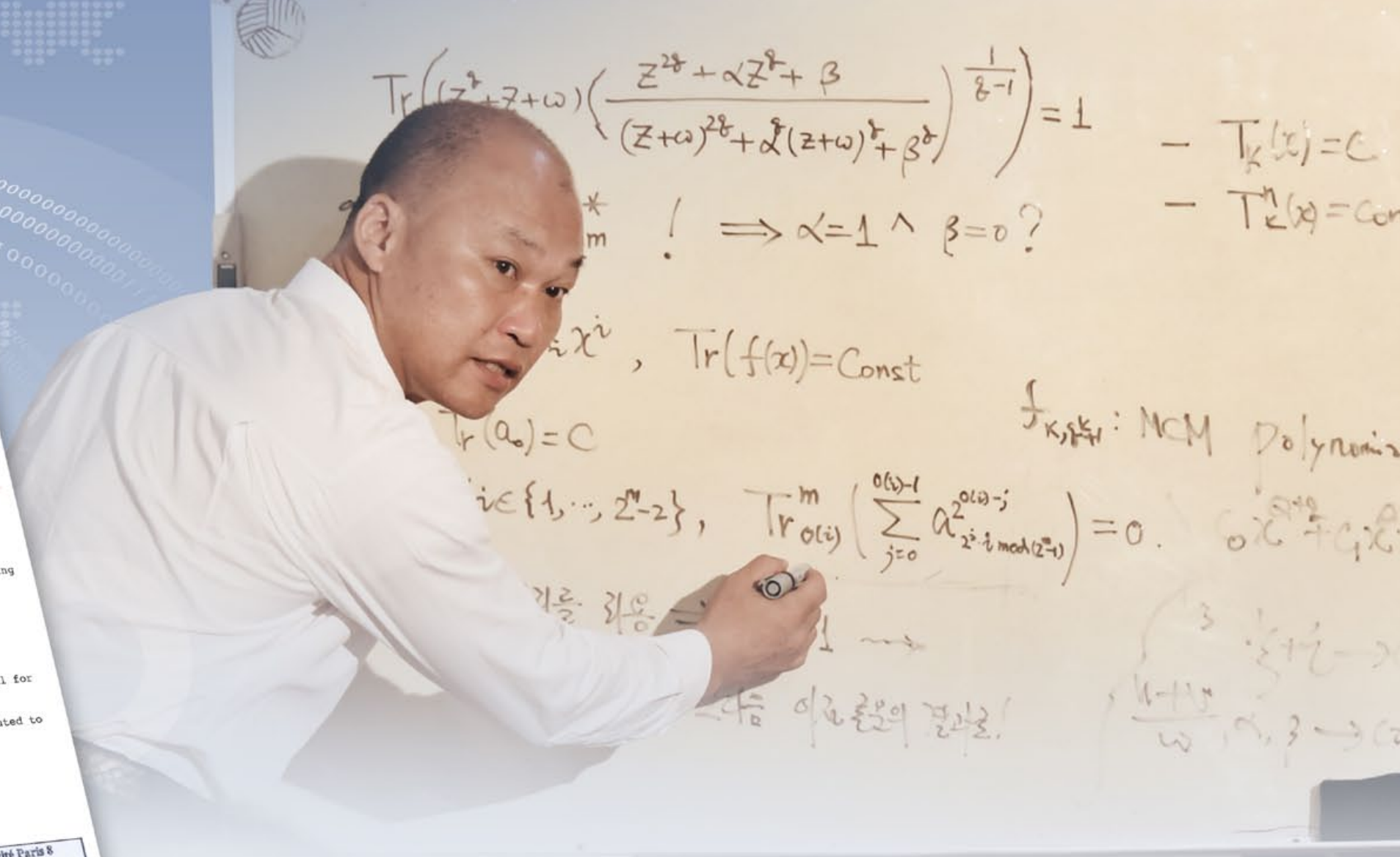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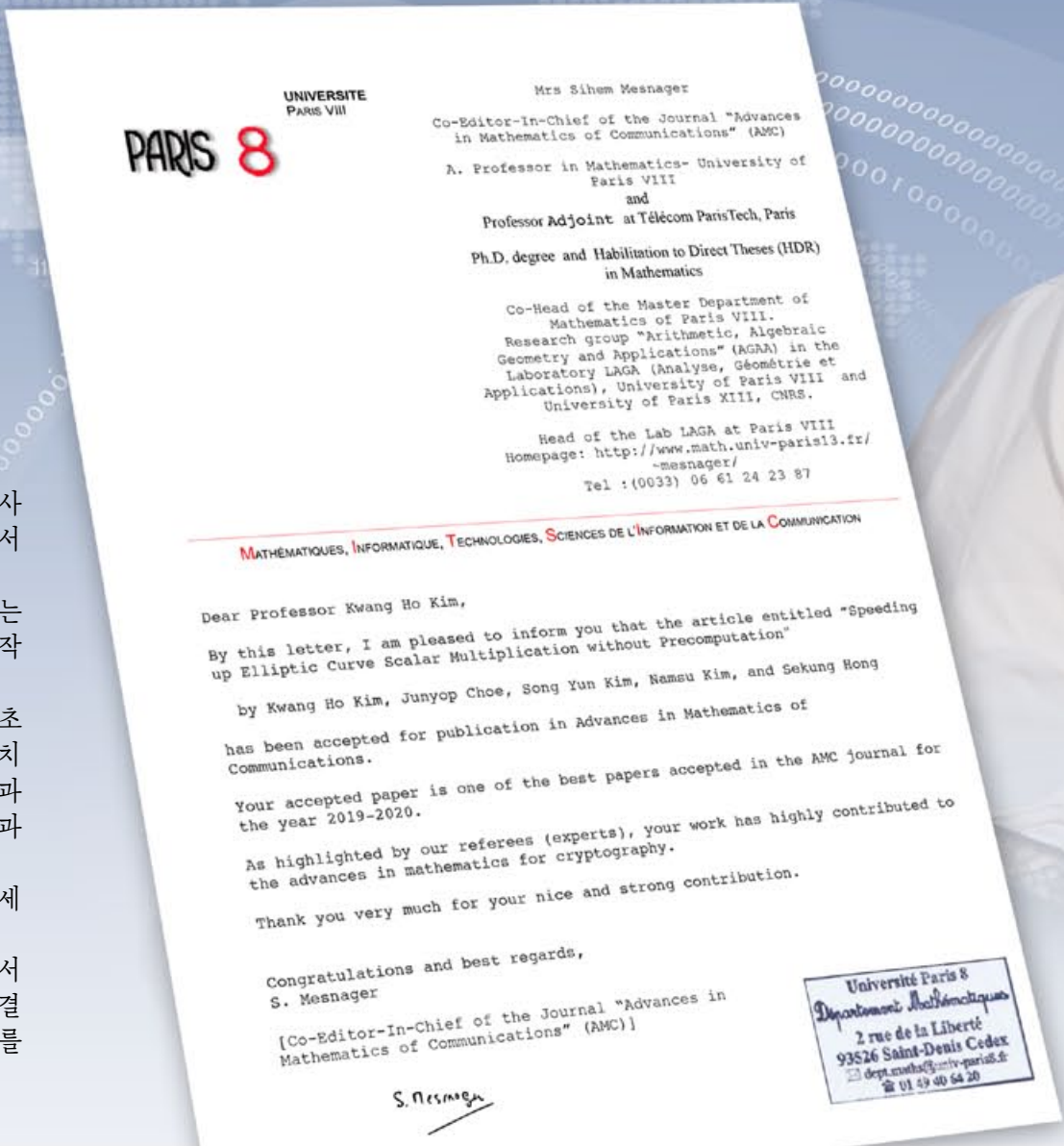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실장 박사 김광호

김광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0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었다.

김광호는 주체69(1980)년 6월 8일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출생하였다. 고향에서 중학교(당시)를 다닐 때 전국수학경연에 입선한것으로 하여 청진제1중학교에 전학하였다.
주체86(1997)년 리과대학 응용수학부에 입학하였고 졸업하면서 대학생과학탐구상을 받았다.
주체91(2002)년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연구사로 되여 2년후 석사, 4년후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체102(2013)년부터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대수기하연구실 실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올해 3월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연구집단들에 수여하는 2.16과학기술상을 받고 2020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었다.
지난 9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과 연회에 참가하였다.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실장 박사 김광호는 계산대수기하학분야에서 세계적인 과학자의 한사람이다. 리과대학의 학생시절부터 그는 계산대수기하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기초 과학의 미지의 세계를 한치한치 헤치는 과정에 그는 2진체타원곡선과 산수연산의 고속화에 관한 연구성과를 내놓아 26살에 박사가 되었다. 김광호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분발하였다. 그는 계산대수기하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여러건의 미해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여 학계를 놀래웠다.



그가 망라된 연구집단이 발표한 연구결과들은 수백번에 걸쳐 해당 전문분야의 국제학술잡지들, 연구 보고서들, 홈페이지들, 학위논문 등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결과로, 《김-김 점두배공식》, 《김-네그레 자리표》 등 연구자의 이름이 붙은 학명으로 인용서술되었다. 미국의 한 암호학자는 2017년 9월 암호학연구분야의 특별소식들을 발표하는 CHES 2017 전체회의에서 조선암호학자들이 제출한 논문의 기술이 모든 선행기술을 능가한다는 데 대해 발표하고 세계인터넷 보안표준 TLS 1.3에 이 기술을 반영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주체111(2022)년에 진행되는 유한체산수에 관한 제9차 국제학술 토론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지금 세계의 우수한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있다. 올해에만도 그는 계산대수기하 특히 유한체리론에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3건의 미해결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4건의 논문들로 SCI급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하였다. 그는 이 시각도 대수기하학과 암호학의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즐기차게 벌려가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최광호



《피콜새학교》에서 성악가후비들이 자란다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을 찾아서

38년의 연혁을 가지고있는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에서는 인민배우, 국제콩클 수상자를 포함한 훌륭한 성악가들을 배출하였다.

평양시의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은 학생수가 200명정도인 그리 크지 않은 예술교육단위이다.

하지만 38년의 연혁과 더불어 인민배우, 국제콩클수상자를 포함한 많은 성악가들을 배출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초급반과 고급반과정으로 구분되어있는 이곳의 조기성악교육은 전문교육을 받고 예술단체경력까지 갖춘 10여명의 교원들을 축으로 하여 진행되고있다.

입학생모집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해마다 개학을 몇달 앞두고 교원들은 시안의 소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졸업반학생들속에서 예술적소질과 체모를 갖춘 대상들을 선발한다.

모집된 학생들은 시창, 노래, 인물심사로 된 두번째 공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통과되는 비율은 평균 50%정도이다.

마지막으로 국어, 수학과 같은 과목 시험을 치르고나면 해마다 30~40명 정도의 입학생이 선정된다.

학생의 90%이상이 처녀애들이다.





대체로 오전에는 일반과목을, 오후에는 시창, 피아노, 물동과 같은 음악과목을 수업한다.

초급반 시기에는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수업이 많다.

그에 따라 지도교원이 다시 선정되기도 한다.

고급반 시기에는 성악기법을 원만하게 소유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음악리론, 피아노, 장고(조선민족타악기) 교육도 준다.

선천적인 재능도 어떻게 키워주는가에 따라 그 결실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고 있는 이곳의 교육자들이다.

학생들은 해마다 여러 예술경연들을 준비하는 계기와 국가예술공연들에 창조출연하는 기회를 통해서도 자기들의 기량을 더한층 연마한다.



하여 전국적인 학생소년예술경연 등에서 입선자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졸업생들속에서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을 비롯한 상급대학들에 입학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진 황정혁
글 강수정





평양의 저녁



수도의 거리들에 저녁이 왔다.
보람찬 하루일을 마친 시민들이 창조의 기쁨을 나누고 래일의 혁신을 다짐하며 즐거운 퇴근길에 올랐다.
랑만과 희열을 안고 불밝은 거리들로 연연히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렬은 오래도록 그칠줄 모른다.
불장식으로 단장된 공공건물들이며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의 불밝은 창가마다에도 은은한 저녁의 정서가 짙게 어렸다.



흥성이는 봉사망들

수도의 상업봉사단위들이 저녁을 맞으며 더욱 활기를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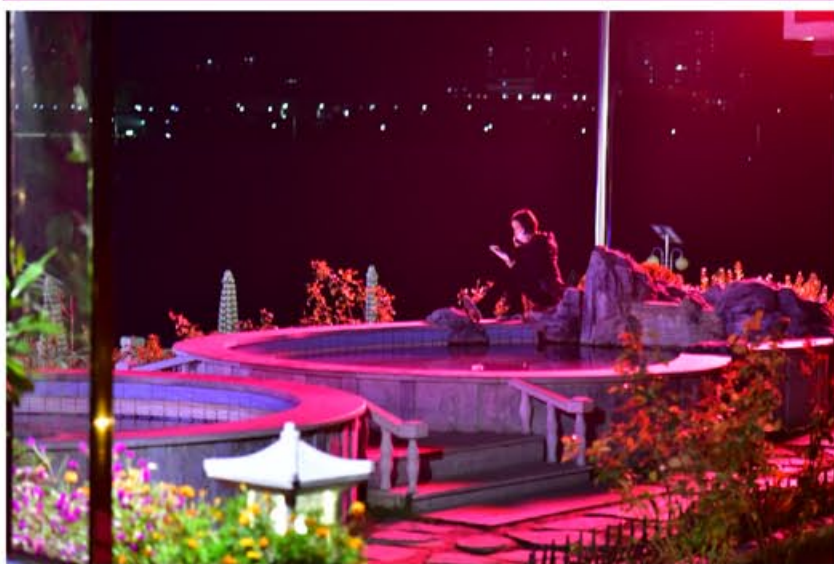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유명한 봉사기지들에서 친절한 봉사활동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모두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있다.

특색있게 꾸려진 상점들은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들을 사들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흥성이고 화려한 식당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즐겁게 저녁식사를 하는 손님들의 모습들로 더욱 밝아지는듯싶다.



수도의 문화정서기지들도 어서 오라 사람들을 부르는 듯 자기의 자태를 한껏 드러내고있다.
 귀여운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가는 녀인들의 얼굴에도, 서로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유보도를 거니는 청춘남녀들의 얼굴에도 행복의 미소가 한껏 어려있다.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는 희망찬 래일을 약속하며 밤이 깊어가도 그칠줄 모른다.

사진 홍광남
 글 박인철



高麗人參活性片
Koryo Insam Active Tablet



고려인삼활성알약



생당쑥
Artemisia messerschmidtiana
茵陈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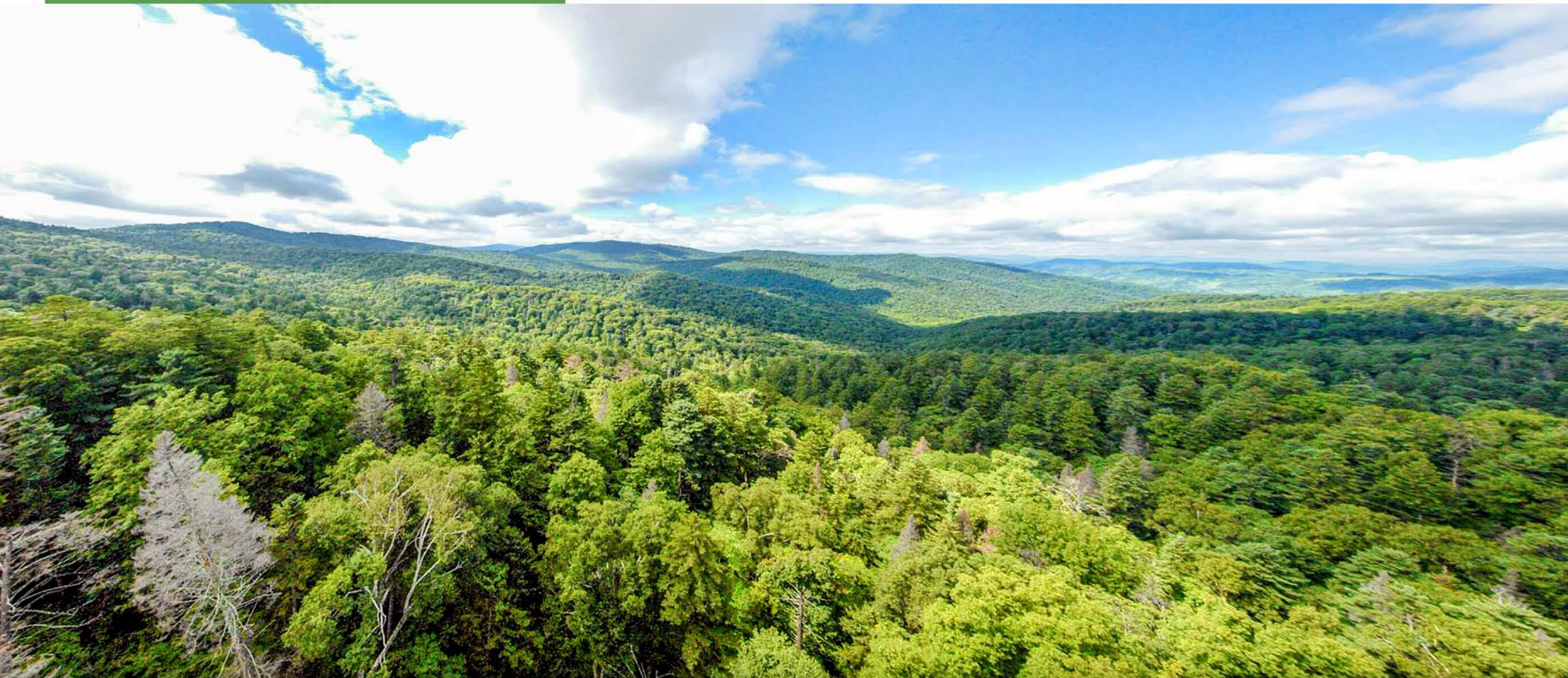
가시오갈피
Thorny Ginseng
刺五加



삼주
Korean Atractylodes
苍术

고려인삼활성알약은 조선의 특산인 개성고려인삼을 비롯한 면역기능강화약초들과 셀렌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면역부활작용 및 항산화작용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와 과산화물, 독성물질들을 분해처리, 무독화시켜 여러가지 질병들을 예방, 치료하는 면역활성약입니다.
고려인삼은 면역부활작용, 항암작용을 비롯하여 다방면적이면서도 약리작용이 센것으로 하여 약초의 《왕》으로 불리우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약재입니다.

고려인삼활성알약은 인체의 모든 질병이 면역저하로 하여 생기는 원리로부터 면역을 높여 자체의 면역계통을 활성화시켜 급성 및 만성 위염, 활동성만성간염, 기능성소화불량증, 만성 설사증, 특막염, 기관지천식, 고혈압, 간암, 유선암을 비롯한 각종 암, 리논이나 사마귀형질병, 방사선피해, 당뇨병, 결핵, 알레르기성질환, 회충증, 중독증 등의 치료에서 특이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조선의 국보들중의 하나인 오가산은
다양한 생태와 오랜 형성력사를 가지
고있다.

오가산이라는 이름은 해발 1 000m이상 되는 5개의 아름
다운 산봉우리들이 태고연한 밀림속에 자리잡고있는데로부터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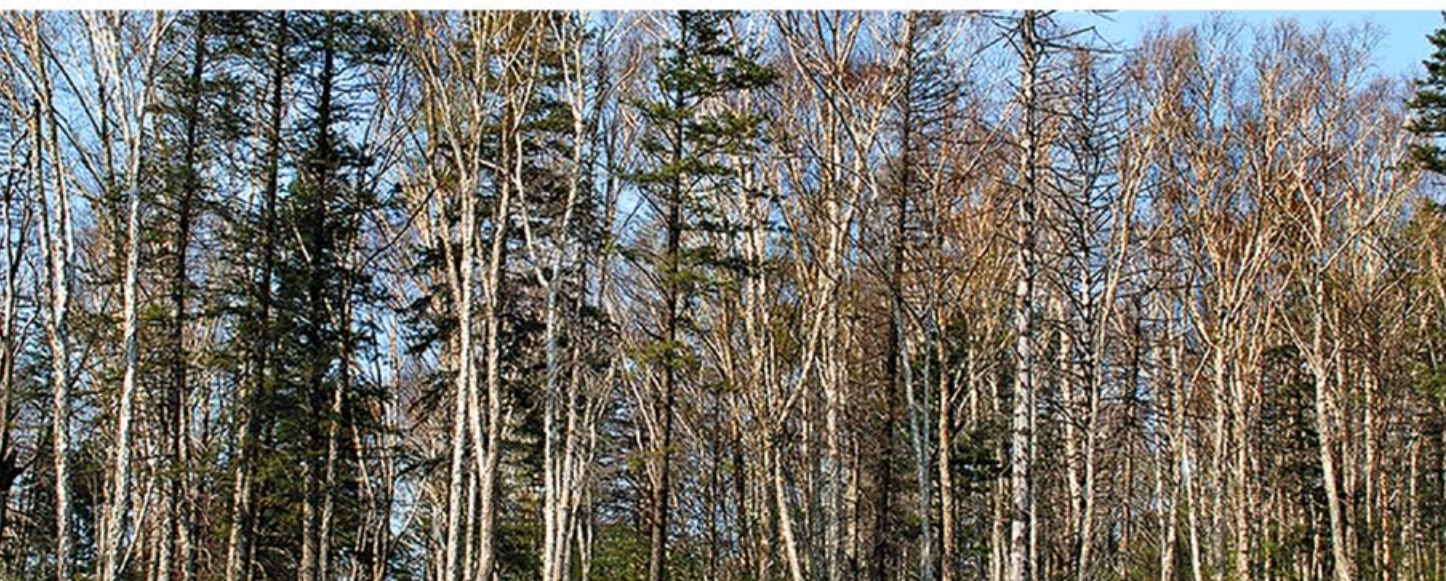
오가산자연보호구



해발 700m 아래지역에는 바늘잎나무가 거의 없고 넓은잎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다.



해발 700~1 000m사이에는 바늘잎나무림과 넓은잎나무림, 바늘잎-넓은잎나무혼성림이 분포되어있다.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붓나무림





1 100여년 자란 오가산주목



700여년 자란 오가산피나무



550여년 자란 오가산잣나무



금강산은
조선의 명산, 세계적인 명산이다.
남북의 길이 60km
동서의 길이 40km
면적 530km²



낸곳: © 조선화보사 2021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